

행복 파트너

글. 남상부(D:EX)  
촬영. 김형섭(INO Studio)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병원 용인 다보스병원

병원 곳곳에 숨겨진 아기자기한 정원,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시설, 그리고 가족 같은 따뜻한 직원들은 다보스병원의 자랑이다. 오늘날의 이런 자랑거리는 조금은 손해가 나더라도 정도(正道)를 걷겠다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쾌적한 친환경 병원인 다보스병원은 용인 동부 최대의 종합병원으로 언제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 용인 다보스병원

용인 다보스병원의 진료과목은 관절센터, 척추센터, 외과, 신경외과,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센터, 피부비뇨기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심장내과 등이다.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일요일은 휴무이다. 용인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전화 031-8021-2114

홈페이지 www.davoshospital.co.kr



## 용인사랑, 용인병원

다보스병원이 있는 곳은 영문의료재단 이사장인 양성범 원장의 고향이다. 양성범 원장은 용인제일의원원으로 시작한 의사 인생에서 의사로서, 병원 경영자로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병원을 개업하고 크게 성공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저의 성공이 나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향 지역 주민들의 믿음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용인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보스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보스병원의 운영 원칙 1순위는 이익 창출이 아니라 병원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느냐다. 양성범 원장의 고향 마을 이름을 딴 영문의료재단의 ‘영문’이란 이름만으로도 얼마나 고향에 대한 애정이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다보스병원은 용인 동부 최대의 종합병원으로 30개 분과, 30명의 전문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유일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다. 특히 관절센터, 척추센터, 소아청소년센터 등 특성화된 전문센터를 갖추고 있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다.

기존 종합병원의 이미지는 삭막하고 좁은 공간 때문에 분주했다면 다보스 병원은 지상 2500평, 지하 5000평의 넓은 공간 속에서 크고 작은 옥내 정원과 여유있는 공간활용으로 쾌적한 진료가 가능하다. 공간에 환자들을 배곡히 채워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여유와 따뜻함을 불어넣어 환자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환자를 제일로 여기는 철학을 양성범 원장은 야구로 비유했다. “야구로 치면 우리병원은 정통파 투수입니다. 수익을 위한 일질의 공수를 배제하고 환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완성해 나아가기 때문이죠. 남들이 보면 바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라는 말이 저에게는 오히려 칭찬으로 들립니다.” 양성범 원장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신뢰도 피력했다.

“다보스병원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협력으로 더 큰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병원의 전문적인 서비스와 친환경 공간으로 환

자들을 위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호텔 같은 친환경 병원

다보스병원의 또 다른 장점은 병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 병원이라는 점이다. 다보스병원은 지역시스템을 도입하여 지하 150m에서 지열을 뽑아내어 냉난방을 하고 있다. 다보스병원과 같은 규모의 건물이라면 5000만원 이상의 냉난방비용이 들겠지만 다보스병원은 한 달에 겨우 400만원만 든다. 환경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가장 대표적이 예라 할 수 있다. 또 병원 곳곳에 만든 정원은 병원에 녹지를 만들고 고객들의 행복 솜터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 다보스병원은 용인시 최초로 진료협력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다보스 적십자 봉사단을 결성하여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거리 청소 같은 소소한 일부터 무료진료 같은 작은 봉사활동들이 모여 지역주민들의 커다란 칭찬으로 돌아오고 있다.

다보스병원 직원들의 자랑거리는 경기도 최초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병원 옆의 건물에 바쁜 직원들의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면서 어린 아이를 가진 직원들도 마음 놓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서는 부담이 되는 결정이었지만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크게 오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큰 산을 넘는 양성범 원장에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묻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앞으로는 병원의 내실화를 기하려 합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보고 소프트웨어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 좋은 의료진을 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중요한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